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6. 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435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전도사 (2부) 김승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시편 18:1~6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씬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 전종남 목사

(O LORD, my strength!)

찬 송 / 391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예배)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가족 인도자

찬 송 / 563장, 559장 기 도 / 가족중

성경봉독 / 창세기 39:1~3

말 씬 / **“형통한 가정”** / 인도자

(A Family, the LORD made to prosper.)

* 설 명절로 인해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예시 → 우측)

■ 저녁 7시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정인종 목사

찬 송 / 430장, 412장

성경봉독 / 고린도전서 12:1~11

말 씬 / **“성령의 은사”** / 정인종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민수기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정인종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전갑영 집사	윤성태 장로	차정근 권사

예배 위원

2월	1부	2부
안내	김춘자	임진수 이영희 최미진
헌금	전갑영	양낙석 우말순 전복희 배복수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3여 김명순 김승규(차정근)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배복수 연윤희 이상혁(송미숙) 이은서 임진수(정해순) 정충호(윤태향) 황인수(최미진)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문미경 박삼강자(가정) 엄상희 유진원(유예원) 윤주희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정충호(윤태향) 조항훈(정근영) 차정근 한지연 *작정헌금: 송미숙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조예림 *월삭: 연윤희		
교육헌금	김상영 김순천(연윤희) 박광연 송미숙 신춘봉(박영미) 이상혁 한희숙		
주일헌금	한지연	구역헌금	유치 유초 중고
선교헌금	3여 청년부 김복례권사자녀 김순천(연윤희) 문미경 박삼강자(가정)		

오늘 (2/11) 오후 가정예배 설교 예시

형통한 가정 (창39:1-3)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예배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누구보다도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시대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였고, 왕의 무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언제 형통했는지, 그 시점(時點)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를 형통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와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을 봅시다.

“2.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9절).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을 꼭 붙잡았습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믿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45:7-8상).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굳게 믿읍시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가 어렵다”, “전쟁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요셉이 붙들었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